

전주한옥마을 곳곳서 울린 재즈 음악

‘제2회 전주 재즈페스티벌’ 개최... BMK·말로밴드·강산에 등 참여 수준 높은 재즈 선보여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재즈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일반시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헤드라이너인 재즈 디바 말로밴드의 공연 시작으로 ‘제2회 전주 재즈페스티벌’ 개막식을 가졌다.

관광객접도시인 전주시가 국내외 잠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재즈여행도시 전주의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17일까지 3일간 한옥마을 곳곳에서 펼쳐졌다.

올해 전주 재즈페스티벌은 △경기전 안을 조경묘 앞을 무대로 한 ‘베인공연’ △마루달 야외마당과 청연루 앞을 무대로 한 ‘미니스테이지’ △경기전 광장 앞 오픈 잼세션 등으로 꾸며졌다.

페스티벌 첫날인 13일 오후에는 Horn Tony(혼토니)와 디바 컬처스(뮤지컬팀)가 한옥마을 곳곳을 누비며 재즈와 뮤지컬의 합창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어 경기전 안에 마련된 메인무대에서는 우범기 시장의 축제 개막선언과 함께 공연의 헤드라이너인 재즈 디바 말로밴드의 공연이 펼쳐졌다.

축제 둘째 날인 16일에는 △강산에 △HG링크 트로니 김흥기 재즈드러머 △빅밴드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소울 국모 BMK △정중화빅밴드 △디마재즈 오케스트라의 재즈 사운드가 선보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2회 전주 재즈페스티벌은 재즈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분야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뮤지션과 참여자들이 재즈를 통한 다양한 예술분야를 경험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김무늬 사진작가 두번째 개인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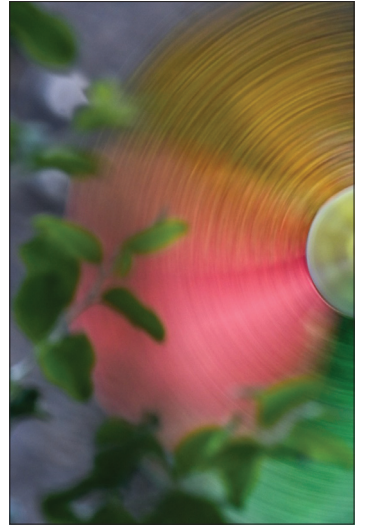
20일까지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서 ‘사소한 기억의 편린들’ 전시

김무늬 사진작가의 두번째 개인전 ‘사소한 기억의 편린들’이 20일까지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 2층에서 열린다.

‘사소한 기억의 편린들’ 전시는 우리 주변의 풍경, 사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름밤 공원 조명, 바람개비, 오라실 사탕, 현수막 등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만한 사소하고 익숙한 풍경을 담았다.

김 작가는 “빛과 색감에 주목하며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고자 했다. 바람개비를 촬영한 사진 ‘날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회화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본래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담아내 사진의 재미를 느꼈던 작품이다”고 작업 소회를 밝혔다.

8년 전 필름카메라를 처음 접하며 사진을 시작한 김 작가는 2022년 11월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전시프로젝트에 선정돼 전북예술회관 문방 전시장에서 전주 구도심 풍경 28점을 선보인 바 있다. /김재훈 기자



김무늬 사진작가 작품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펼쳐진다

전주역사박물관, 28일~10월 3일 체험·기획전시 등 다채롭게 운영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개최 예정인 기획전시 ‘잇! 서당에 갈 시간이야’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

이번 추석행사에서는 전통놀이 도구를 직접 만들어보고 꾸러미(예코백)에 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전통놀이 꾸러미 만들기’와 기획전시에 출품 예정인 ‘조선유람도’를 모티브로 한 ‘전주 명소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체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기차기와 투호, 굴렁쇠, 연날리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가족들과 함께 체험 공간이 제공되고, 오는 30일에는 추석 행사와 연계해 ‘9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최미영 전주시 전주박물관장은 “기획전시 ‘잇! 서당에 갈 시간이야’ 개최와 전통놀이를 주제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전주역사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맞이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www.jonju.go.kr/jonjumuseum)과 전주역사박물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포스터

문화재청, 내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389건 선정

문화재청이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대상으로 38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지난 7월 한 달 간 진행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636건이 접수됐다.

이 중 ‘생생 문화유산’ 150건,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99건, ‘문화유산 야행’ 49건,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46건, ‘고택·종가집 활용’ 45건 등 총 389건이 선정됐다.

생생 문화유산 사업에는 기존 사업 139건에 ‘동광원묘가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 ‘술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 ‘삼강주막 주모요 잘~ 지내시니까!!’ 등 신규 사업 11건이 추가됐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는 88건 기존 사업에 더해 ‘선비의 배움터 여주향교’, ‘내일을 여는 보은향교’, ‘시·공간의 기억, 광양향교’ 등 11건이 새로 선정됐다.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전년도 지원된 43건에 ‘죽사야행, 관동제일이야!’, ‘계양 문화유산 야행’ 등 6건이 추가됐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기존 42건과 함께 ‘대웅대좌,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 ‘전등사 명부전, 아름다운 삶을 비추다’ 등 신규 4건이 선정됐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37건 기존 사업에 ‘뽕주는 고현고택’, ‘복쟁리 유정 가옥 구들장 체험’ 등 8건이 더해졌다. /뉴시스

위은영·김윤희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대통령상 수상 겹경사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단장 이용탁)은 9월 들어 대통령상 수상자 2명을 배출하는 겹경사를 맞이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관현악단 위은영(거문고) 수석단원과 김윤희(가야금·양금) 중단원으로 명망 있는 대회에서 출전해 대통령상 수상자가 되는 쾌거를 이뤘다.

먼저 위은영 수석은 1983년을 시작으로 수많은 명인을 배출해 전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인 ‘제41회 전국국악대제전(9월 9일~10



위은영

일)’에서 일반부 현악부문 한갑득류 거문고산조를 연주해 대통령상을 거머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총 299명이 참가자와 관악, 현악, 가야금병창, 민요, 무용에 타악까지 총 6개 부문에서 열린 경쟁 끝에 당당히 종합대상을 수상해 명인 반열에 오르는 명예로운 업적을 남겼다.

위은영 수석은 1991년 도립국악원 입사 후 다수의 독주회, 협연 등을 통해 거문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대한민국 국악인들의 종합 축제인 ‘제22회 대한민국 빛고를 기억대제전’에서 김윤희 중단원이 명인부 현악부문 가야금 연주로 종합대상을 받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현전하는 가야금 유과 대부분을 탄생시킨 가야금 산조의 발생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야금으로 종합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달에만 두 명의 대통령상을 배출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은 국·공립 예술단체 중 가장 많은 대통령상을 보유한 단체로 한국 최고의 전통예술기관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2023년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각각너머 감쪽 문화영재 예술캠프’에 참여할 청소년 25명을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며, 모집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교육과정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누리집(gc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 캠프로 나눠 운영된다. 첫

단계인 멘토-멘티 교육프로그램은 총 3회(10월 14일, 10월 21일, 10월 28일)로 예술강사와 함께 주제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두 번째 단계인 융합예술캠프(2박 3일,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창의적 발상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동·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제7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하차제

보은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3시~

전북도청 대강당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 합창단

마음모아 합창단

김재시립합창단

온고을어머니합창단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원주소년소녀합창단

완주여성합창단